

배포 일시	2022. 11. 1.(화)		
담당 부서 <총괄>	교통물류실	책임자	과 장 박진호 (044-201-3847)
	첨단자동차과	담당자	사무관 오영석 (044-201-3851)
보도일시	2022년 11월 2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‘관광 연계형’ 자율주행 서비스 제주에서 본격 개시 - 3일부터 공항·해안도로·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한 “탐라 자율차” 서비스 -

(앞으로는) 제주를 찾는 여행객은 공항에 도착 후 공항 도착층에서 “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”를 이용하여 제주 해변(이호테우 해수욕장, 용두암 등)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. 관광 후 다시 자율차로 공항에서 중문단지 내 호텔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으며, 중문단지 내에서도 자율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제주여행이 더 기대된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월 3일부터 제주 해안도로 및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“탐라 자율차”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  - ‘탐라 자율차\*’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‘23년까지 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「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」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다.
    - \* (참여업체) 라이드플렉스(운행사), 아이티텔레콤, 광명 D&C, KAIST, 제주연구원
- 지난 ‘20년에 시작한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새싹기업(스타트업)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으로 마련한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부가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주 자율주행서비스에는 40억이 지원될 예정('22.06~'23.12)이다.

## 《2차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 개요》

- (목적) 민간기업에 **자율차 제작·인프라 구축·서비스 운영비용** 등을 지원하여 자율주행 대국민 **체험기회 확대** 및 **민간기업 사업화 촉진**
- (사업대상지) **제주** 공항인근 해안도로·중문관광단지('22년), 서귀포 혁신도시내('23년 예정)  
**대구** 테크노폴리스('22년), 국가산업단지('23년 예정)
- (사업기간·사업비) 2개년간('22.06~'23.12) 각 지역별 민간사업자에 40억 지원
- \* **1차사업**('20~'21, 시흥 “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심야셔틀” 서비스) : **자율차 제작(7대)** 및 **서비스 운영을 통해 1,900명** 이상의 시민에게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

- ‘탐라 자율차’ 서비스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공항 인근의 용두암-이호테우해변 등 해안도로(총 16km)와 중문관광단지 내(5km<sup>2</sup>)에서 각각 운영되며, 대중교통 및 기존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연계해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.
  - ‘22년에는 자율차 3대(해안도로 2대, 중문단지 1대)를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, 전문 교육을 받은 안전 관리자가 비상 상황을 대비해 운전석에 탑승한다. 서비스 예약 및 차량 호출은 운영업체인 **라이드플러스 누리집(주소)** 서비스 링크와 **QR코드**를 통해 할 수 있다.
  - 한편, 이번 2차사업에 민간사업자로 함께 선정된 **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\***도 11월 중에 서비스 준비를 마치고 **대구 테크노폴리스(10.6km)**와 **국가산업단지(17.6km)**에서 **여객서비스('22년)**와 **로봇 배송('23년)**을 제공하는 “**달구벌 자율차**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.
  - \* (참여업체) 오토노머스에이투지(운행사), 카카오모빌리티, KT, 현대오트에버, 뉴빌리티, 한국자동차연구원
-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“제주도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관광도시로서 이번 시범사업이 제주도의 관광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히면서,
  - “정부는 우리기업이 상용화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자율차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덧붙였다.

## 참고 1

## “탐라 자율차” 서비스 운영 계획

### ① [서비스 1] 공항주변 주요 관광지 순환 노선

- (서비스 차량) 자율주행 승용차(아이오닉 일렉트릭) 2대
- (서비스 형태) 사전예약 기반 (최대 14일 이전 예약 가능)
- (출·도착지) 노선 내 정류장 자유 설정 (기존 버스정류장 기반)
- 15분 단위로 희망하는 이용시간 설정
- (운영시간) 평일 10:30~18:30 (Break Time 13:15~14:30)
- (운영노선) 제주공항 → 이호테우 해변 → 도두봉 → 무지개해안도로 → 어영공원 → 용두암 → 제주공항 (총 16km 순환코스, 약 45분 소요)



### ○ (서비스 이용 방법)

1) 서비스 예약 페이지 접속 (<https://reservation.rideflux.com/tamra>)

\*QR코드



탐라자율차 탑승 요청



- 2) '해안도로 순환형 서비스' 터치(클릭)
- 3) 출발 정류소 및 도착 정류소 선택
- 4) 탑승을 원하는 시간 선택 (15분 단위)
- 5) 탑승객 정보 입력 후 예약 완료

② [서비스 2] 중문관광단지 라스트 마일 서비스

- (서비스 차량) 자율주행 승용차(아이오닉 일렉트릭) 1대
- (서비스 형태) 실시간 수요응답형(실시간 호출 대응)
- (출·도착지) 아래 조건 내 자유 설정
  - \* 출발지를 정류소로 선택 → 반경 2km 이내 도착지 자유설정
  - \*\* 도착지를 정류소로 선택 → 반경 2km 이내 출발지 자유설정
- (운영시간) 평일 10:30~18:30 (Break Time 13:15~14:30)
- (운영시간) 평일 10:30~18:30 (Break Time 13:15~14:30)
- (운영노선) 중문관광단지 중심 전체 면적 5km<sup>2</sup>



○ (서비스 이용 방법)

1) 서비스 예약 페이지 접속 (<https://reservation.rideflux.com/tamra>)

\*QR코드

 <p>탐라자율차 탑승 요청</p>	 <p>중문관광단지 구역형 서비스 속소문 앞까지 빠르게 전여차량이 없습니다.</p>
--	--

- 2) '중문관광단지 구역형 서비스' 클릭
- 3) 출발 혹은 도착을 원하는 버스정류소 선택
- 4) 선택한 정류소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승차 혹은 하차 지점 선택
- 5) 탑승객 정보 입력 후 호출 완료

## 참고 2

## ‘탐라 자율차’ 모빌리티 서비스 주요 내용

### □ 서비스 개요

#### ○ (서비스 명칭) ‘탐라 자율차’

- 제주의 옛지명 ‘탐라’ 차용, 자율주행차가 ‘탐이 난다’는 중의적인 의미

#### ○ 주요 내용

- (전국민 대상 서비스) 연간 1,500만명이 방문하는 제주도에서 이동수요가 많은 주요관광지를 통행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
- (서비스 지역) 공항 인근 해안도로(이호테우 해변, 무지개 해안도로, 어룡공원 등), 중문관광단지내 편의시설(신라·롯데호텔 등) 연계서비스
- (기대효과) 기존 대중교통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여 대중교통과의 시너지 제고

### □ 운행 차량

#### ○ (차종) 아이오닉 일렉트릭(최고속도 80 km/h)

#### ○ (센서구성) 라이다(1개), 레이더(1개), 카메라(4개) 등

